



畫傳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깊이 읽기

자생적 시각으로 본 근대기 화가들의 이야기

글쓴이_윤범모(미술평론가, 경원대 미술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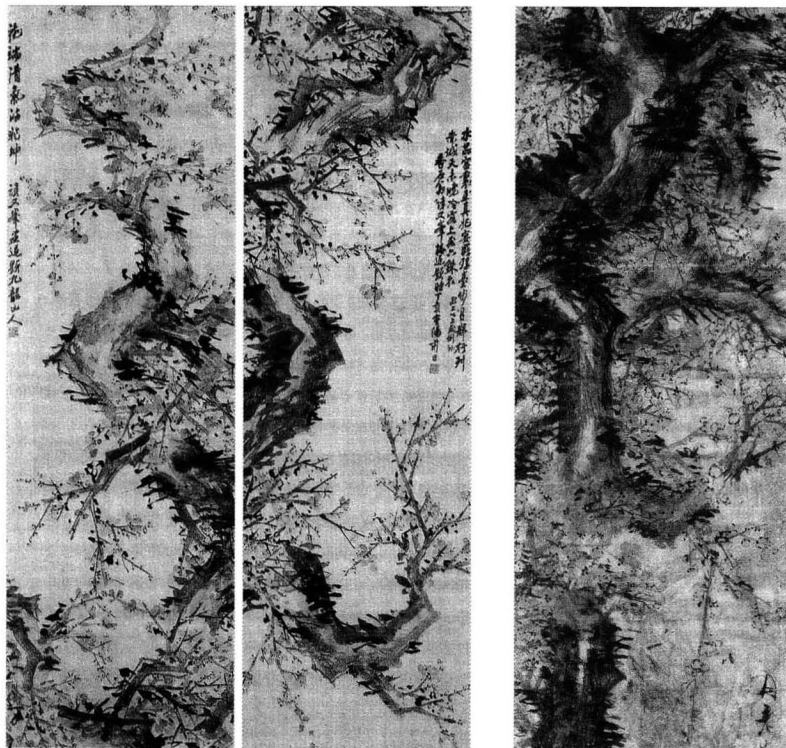
최열의 《화전畫傳》을 단숨에 읽었다. 잡지에 연재할 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월이 제법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대하는 글처럼 상큼했다. 그만큼 문장이 물 흐르듯 유려했고, 소재가 흥미로웠다. 사실 그림이야기, 아니 화가이야기는 상투적인 경우가 많다. 특히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화가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저자의 문제의식이 관건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각도에서의 조명, 이 대목이 소중한 것이다. 그것도 남들이 무관심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 조명은 각별하다.

《화전》은 화가전기 혹은 화가열전의 줄임말이라 한다. 다소 입에 생소한 말이기도 하다. 이 책의 내용은 19세기 후반부와 20세기에 걸쳐 활동한 화가 28명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크게 전환의 세기와 격정의 세기로 양분한 다음 각각 4개의 범주로 화가들을 나누어 유과를 설정했다. 예컨대 '신감각의 회오리'로 김수철, 전기, 남계우, 홍세섭이, '고전의 위력'으로 유숙, 이한철, 장승업, 안중식, 이도영이, '사상의 거처'로 채용신, 김진우, 오세창이, '심미의 절정'으로 오지호, 김주경, 이인성, 유영국이, '황폐한 시절의 미학'으로 변관식, 김환기, 이중섭이, '역사와 낭만'으로 박생광, 이쾌대, 이응노가 소개되었다. 그같은 개념으로 또 그같은 화가들을 한자리에 묶는 것에 대한 타당성은 그야말로 연구의 대상이겠지만, 그같은 시도만큼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물론 같은 유과 안에서 누락된 화가도 적지 않으니 이는 차후의 과제일 것이다. 더불어 작가 선정기준이 보다 분명히 제시되었으면 비단 위의 꽃이었을 것이다.

《화전》에 대한 소견을 말하기에 앞서 요즈음의 미술출판 행태에 대하여 한마디를 하고자 한다. 근래의 주요 유행어 가운데 하나는 불황이란 것이다. 경제불황의 늪은 희망조차 접게 하면서 허리띠를 마냥 조이게만 한다. 하여 출판계 역시 심각한 표정에서 벗어날 줄을 모른다. 불황이라는데 미술코너에서 신간을 꾸준히 볼 수 있다.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상당수의 미술 신간들은 글자 그대로 대중용이다. 여기서 대중용이라는 용어의 뉘앙스는 다소 "가볍다"라는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사실 그렇다. 너무나 가벼운 책들이 범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인 미술 책들이 넘치고 있는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어떤 때는 출판공해라는 단어까지 떠오르게 하기도 한다.

물론 미술출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모르는 바 아니다. 원색도판의 사용 혹은 유족에 의한 저작권 등 제작비의 부담을 간과할 수 없으리라. "미술 책은 비싸다"라는 말, 이는 괜히 생긴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성 하나만 염려한 결과인지 값싼 일회용 미술 책이 너무 넘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들 책들이 얼마만큼 영업에 도움을 주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미술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도외시키고 노변정담만이 넘쳐흐르는 미술출판계라면, 이는 불행한 일이다.

최열의 《화전》은 대중용이면서도 기왕의 값싼 대중용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무엇보다 저자의 전문가적 소양과 더불어 문제의식이 살아 넘치기 때문이다. 읽거나 말거나의 차원이



1 2 조희룡의 홍매도紅梅圖
3 조희룡의 매화도梅花圖
4 김정희의 불이선란不二禪蘭

1 2 3 4

이 글을 쓴 윤범모는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뉴욕대 대학원 예술행정학과에서 수학했고, 호암갤러리, 예술의 전당 미술관, 이응노미술관 개관 실무책임임을 맡았다. 월간 <가나아트> 편집주간, 한국근대미술학회 회장이었으며 현재 경원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아닌 것이다. 이 책의 장점은 무엇보다 자주적 입장에서 우리 미술을 서술했다는 점일 것이다. 여기서 자주적이라는 표현은, 사실 표현은 쉽지만, 실제로 미술동네에서 사용하기 조심스러운 용어이다. 특히 고매한 학자들을 포함한 상당수의 미술인들은 우리의 미술을 논할 때 꼭 외국과의 영향관계를 강조하려 한다. 중국의 영향이 어떠니 혹은 서구의 영향이 어떠니 등등 우리의 미술과 외래의 미술과의 영향관계에 필요 이상으로 방점을 찍고 싶어한다. 외국 운운해야 권위가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남의 나라의 자로 우리의 미술을 재는 한 우리 미술은 정당한 평가에서 유보될 것이다. 그렇다고 문을 똑꼭 걸어 잠그고 쇠국정책을 쓰자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세태가 지나칠 정도로 외래미술의 범람시대와 같아 떠오른 하나의 기우杞憂일 따름이다. 언제까지 서양의 뒷골목에서 헤매고 있어야 할까. 《화전》은 우리 미술의 자생성 혹은 내면의지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된 책이다.

《화전》의 특징은 그동안 사각지대처럼 소외받아 오던 조선왕조시대 말기의 19세기 화가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는 데에 있다. 이 책에서 다룬 20세기의 화가들은 그런 대로 알려진 화가들이다. 하지만 19세기의 화가들은 대중적으로 친숙하지 않다. 저자는 조희룡 같은 화가를 높게 평가하면서 그 시대를 다시 보게 했다. 조희룡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사 김정희의 존재가 소홀하게(?) 취급되었다. 아니 저자는 추사에게 감정이라도 있는 듯 점수를 주지 않았다. 하기가 추사는 과대평가받는

경향이 없지 않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조희룡을 추사의 제자라며 폄하의 대상으로 삼은 것부터 재고하게 하는 부분이다. 작고한 청명 임창순 선생은 나에게 추사를 일러 과대평가 받는부분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예》라는 책을 만들 때 실무자인 나에게 한 수 일러준 말씀이었다. 무조건적인 예찬에서 이제는 추사를 재평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논리로 폄하의 대상이었던 조희룡에 대한 재평가 작업도 시행되어야 하리라. 19세기 화가들에 대하여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나는 《화전》에서 20세기 화가들보다 오히려 19세기 화가들의 부분을 더욱 재미있게 읽었다.

편하게 읽은 책을 가지고 가타부타 말을 하려니 오히려 부담스럽다. 이왕에 내친 김에 저자에게 한마디의 부탁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조선말기 화가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성과물을 기대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는 보다 정치精緻하고 수준 높은 담론의 전개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더불어 작품에 대한 폭넓은 분석 혹은 소개를 기대한다. 역시 화가는 그림으로 발언을 한다. 인간사적 측면의 접근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화가는 작품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작품 중심의 본격적 기술이 역시 아쉬운 것이다. 《화전》은 마치 본격적 저술로 가기 위한 앞 단계의 위밍업일지도 모른다. 근대미술의 기점을, 다른 연구자들의 견해와 다르게, 시대 상환을 올려보는 저자의 경우를 감안하여, 조선후기에 대한 저자의 본격적인 연구 성과를 기대하고자 한다. **윤범모**